

시칠리아 이슬람화와 ‘이프리카야’(Ifriquia) 베르베르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

임 기 대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HK교수)

◆ 국문초록

본고에서 언급하는 ‘마그레브’ 혹은 ‘이프리카야’는 이슬람문화권이라는 이유로 대개 아랍·이슬람 중심으로 설명되거나 이해되었다. 이는 ‘동일성’의 논리에 따른 것으로 지역 이해에 대한 여러 왜곡 현상을 불러왔으며, 흔히 서구중심주의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동일성’으로 귀결되는 ‘이프리카야’ 이슬람의 시칠리아 정복 과정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베르베르인의 역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동일성’의 논리를 극복하고, 지역 문화와 문명 교류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시칠리아는 지중해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대결 국면을 형성했던 곳이며, 중세시대 이 지역은 이슬람의 땅이기도 했다. 이슬람의 정복 과정은 아글라비드 왕조를 전후하여 파티마 왕조기에 접어들며 완성되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다. ‘이프리카야’에서 아랍과 베르베르, 베르베르와 베르베르, 이외에도 이슬람 종파 간의 대결이 시칠리아 정복을 지지부진케 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서 시칠리아의 이슬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베르베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거의 전무하다.

본고에서는 시칠리아 이슬람화 과정에서 전개된 ‘이프리카야’의 상황과 베르베르인이 시칠리아 정복에 참여한 여러 배경 등을 살펴봄으로써 아랍 주도의 이슬람화가 아닌 이슬람화한 여러 베르베르 부족 주도의 이슬람화였음을 여러 문헌과 이프리카야 현지 조사 연구 내용 등을 토대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주변부’에 있던 베르베르인의 역할, 나아가 이들이 지중해와 아프리카 문명을 어떻게 연결시켜갈 수 있었는지를 가능해볼 수 있다.

주제어 : 시칠리아, 베르베르, 이프리카야, 아글라비드, 파티마, 쿠타마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2022221)

I. 머리말

시칠리아는 노르만의 정복이 시작되는 11세기 이전까지는 이슬람 세계에 편성됐다. 소위 말하는 아랍-시쿨로(Arab-siculo)문화라는 말은 이때부터의 시기를 일컫는다¹⁾. 이 시기 시칠리아를 지배한 이슬람 왕조는 아글라비드(Aghlabid, 800-909), 파티마(Fatimid, 909-973), 칼비드(Kalbid, Kalbite, 948-1053)²⁾ 왕조였다. 이런 이슬람의 지배 역사는 이후에도 시칠리아 역사 속에 깊이 남게 된다.

본고에서 살펴볼 시칠리아의 이슬람화에 관한 내용은 초기 아글라비드 왕조 전후 시기와 관련된다. 아글라비드의 시칠리아 점령은 안달루시아에 비해 지루하고 불완전한 점령이었다. 완전히 정복되지 않는 시칠리아 섬 내부에서 기독교인의 공격이 간헐적으로 있던 데다 비잔틴 본국에서도 지원군을 산발적으로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정성은 이프리카야(Ifriquia)³⁾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당시 이슬람은 이베리아반도를 넘지 못했다. 육로를 통한 이슬람화가 차단되면서 이슬람은 이프리카야의 해상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여러 불안정한 상황이었지만 시칠리아 이슬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본고는 시칠리아 정복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던 것을 이프리카야 내의 아랍과 베르베르, 베르베르와 베르베르 간의 대결 국면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칠리아 이슬람화 과정이 안달루시아와는 다른 상황 속에서 진행됐음을 보고자 한다. 또한 시칠리아 점령 과정에

1) 흔히 시쿨로-아랍어로 9-13세기 시칠리아에서 사용한 아랍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칠리아의 아랍 문화권이라는 맥락에서 사용하기도 한다(Hirochi Takayama 1992:427).

2) 본고에서의 파티마 왕조는 카이로로 수도를 이전한 시기(973-1171)가 아닌 이프리카야(Ifriquia)에 왕조 수도가 머문 시기를 말한다.

3) 중세시대 북아프리카 지역은 오늘날과는 다른 방식의 지명을 사용했다.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마그레브’(Maghreb)라는 이름 대신, 중부 지중해 일대 즉 오늘날 튀니지와 리비아, 알제리 동부 지역 일대를 ‘이프리카야’로 지칭했다.

서 베르베르인은 아프리카와 지중해의 문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개자가 돼주었다. 이런 면에서 다양한 베르베르 부족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시칠리아와의 상관성을 파악해보는 일은 향후 아프리카와 지중해 교역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II. 시칠리아의 이슬람화와 베르베르인

1. 아랍의 '이프리카야' 점령과 베르베르인의 상황

시칠리아가 이슬람의 지배를 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기적으로는 827년부터 시칠리아섬 동쪽 끝의 비잔틴 제국 요새인 타우로메니온(Tauromenion)이 파티마 왕조에 의해 함락되어 무슬림이 통치를 한 1078년까지이다. 점령된 시칠리아는 '시칠리아 토후국'(Emirate of Sicily)으로 독립 왕조를 유지했다. 문제는 이베리아에 비해 이 지역이 왜 이리 왕조 붕괴가 빨랐는지, 게다가 북아프리카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영향이 이베리아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의문점에 대해 많은 사람은 시칠리아 내의 문제를 지적한다⁴⁾. 그렇기는 하지만 본고에서는 역사에 잘 드러나지 않은 북아프리카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이미 시칠리아 내에서의 문제 발생 한참 전부터 이슬람은 시칠리아를 침략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아랍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했던

4) 특히 에우페미우스의 반란을 많은 사람이 기록하고 있다. 시오노 나나미 2008: 71-73)에 따르면, 826년 시칠리아 동로마 함대 지휘관 에우페미우스는 수녀 한 명과 강제 결혼을 하였고, 동로마 황제 미카일 2세는 분노하여 에우페미우스의 코를자를 것을 명했다. 이프리카야로 쫓겨난 에우페미우스는 아글라비드 왕조에게 시칠리아 침략을 건의했고, 이때 이슬람 군대가 시칠리아에 군대를 파견했다고 한다.

당시는 북아프리카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다. ‘마그레브’(Maghreb)⁵⁾도 그랬지만 ‘이프리카야’도 안정적이지 못했다.

베르베르인과 아랍의 대립에 관한 역사적 문헌은 그리 많지 않다. 역사에서는 주로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세력을 아랍으로 귀결시키는 ‘동일성’(Identity)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한정된 현지 자료만이 베르베르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몇몇 역사적 사실들과 현지 조사 자료, 기존의 중세 베르베르 연구 자료 등이 우리의 논증을 증명해줄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시칠리아 정복은 베르베르와 아랍 간의 대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이프리카야 내의 여러 반란 혹은 왕조 수립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후 9-10세기 이슬람이 시칠리아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통치했다는 시기에도 이프리카야와 시칠리아 내 상황을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결국 시칠리아의 이슬람화가 상대적으로 단명하게 된 것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과 무관치 않은데, 여기에는 아랍과 베르베르 간의 불안정하고 불편한 관계가 한몫했다. 그러므로 이 대결 국면 속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처음으로 시칠리아 침공 당시의 ‘이프리카야’와 ‘마그레브’에서 아랍과 베르베르의 대치 국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베르베르와 아랍의 대결은 이븐 나피 오크바(Oqba Ibn Nafi, 622-683)가 683년 베르베르인 부족장 쿠사일라(Kusaila, ?-688)⁶⁾에 의해 살해된 시점에 발생했다. 그만큼 아랍과 베르베르인 간의 대결이 초기에는 격렬했던 것으로 보인다(Gabriel Camp 2007:127-138). 오크바는 이베리아 반도를 건너지는 않았지만, 모로코를 점령하며 대서양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알제리의 비스크라(Biskra) 인근에서 살해됐다. 그의 이름을 빌려 시디 오크바(Sidi Oqba)라는 도시가 세워졌고, 카이루안 대

5) 여기에서 언급하는 ‘마그레브’는 오늘날의 모로코, 알제리 서부를 일컫는다(임기대 2020b).

6) 산하자(Sanhadja) 베르베르 출신의 기독교 왕이다. 이븐 나피 오크바를 오늘날의 비스트라(Biskra)에서 살해하며 이후 아랍이 ‘이프리카야’에서 수십 년간 몰려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모스크 또한 시디 오크바가 671년 건립한 것이다.



카이루안 대모스크 내부

카이루안 대모스크 기도실

시디 오크바의 오크바 사원

[사진 1] 카이루안 대모스크와 시디오크바 도심 사원⁷⁾

위의 사진 중 왼쪽 사진은 오크바가 북아프리카를 처음 점령했을 당시 세운 전진기지로서의 카이루안이었고, 가운데 사진은 아글라비드 왕조 치하에서 세련되게 가꾸진 카이루안 대모스크의 모습이다(3.1.참조). 우측 사진은 오크바가 베르베르인과 전투 중 사망하면서 훗날 그를 기념하기 위해 전투 장소인 시디 오크바에 세운 모스크이다. 아랍 정복 초기에만 해도 베르베르인의 저항이 상당히 격렬했고, 유대인, 기독교인 등까지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앞서 언급했던 쿠사일라도 베르베르 기독교 왕이었다. 정복해가는 지역에서 아랍은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했고(아이라 M.라피두스 2009:88), 해안보다 내륙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해갔다. 이렇듯 카이루안과 내륙 쪽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은 당시 아랍이 시칠리아 쪽 지중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시오노 나나미 2008:33).

오크바가 살해된 후 무사 이븐 누사이르(Musa Ibn Nusair, 640-716)가 이프리카야의 총독이 되었다. 그는 압바스(Abbassid, 750-1258) 왕조의 통제를 받지 않는 총독이었다. 그는 베르베르인에게 이슬람을 강요하지 않고 자율성과 전통을 인정해주었다. 개종하지 않은 베르베르인은 관료나 군인으로 채용하기도 해 더 많은 사람이 개종해갔다. 대표적인

7) 본고에서의 사진은 연구자가 직접 찍은 것으로 저작권과는 무관하다.

인물이 지브롤터로 명명되고 이베리아반도 정복의 선봉에 선 타리크 이븐 지야드(Tariq Ibn Ziyad)이다. 그는 오레스(Aurès)⁸⁾ 지역민, 즉 샤우이족으로서 제나타(Zenata)⁹⁾ 베르베르인이었다. 바닷가와 사막을 주 활동 무대로 한 산하자 부족의 쿠사일라와는 다른 계통의 베르베르인이었다. 그는 아랍의 이베리아반도 정복에 적극 동참했으며, 당시 샤우이족과 같은 계열의 제나타(Zenata)¹⁰⁾ 베르베르 부족을 이끌고 선두에 섰다.

베르베르인이 아랍에 협조하며 이슬람의 정복 과정에 기여했지만, 아랍은 여전히 베르베르인을 ‘딤미’(Dimmi)라는 이름의 이등 시민으로 취급하였다. 무사 이븐 누사이르 이후는 베르베르군을 아랍과 동일하게 대했지만 그의 후임 야지드 이븐 아비 무슬림(Yazid ibn Abi Muslim, ?-721)은 베르베르군을 차별했다. 이전 베르베르인에 대한 우대 정책을 폐지하고 베르베르 출신 장교를 강등시키기도 했다. 또한 베르베르인에 대한 세금 부과를 강화했다¹¹⁾. 때마침 720년경에는 수프리즘과 이바디즘을 숭상한 카와리지와 포교사들이 평등과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새로운 정치 질서를 약속했다. 마그레브에는 유대교와 토속 신앙인들이 거주하였다. 반면, ‘이프리카야’에는 기독교인들도 거주하였다. 이프리카야에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타리크와 같은 인물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베르베르 세계는 기독교와 토착 신앙 전통이 강했다. 이들은 아랍의 새 지도자들이 인두세, 토지세, 노예세를 요구하며 이등 시민으로 취급하니 불만이 팽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카와리지 포교사들

8) 알제리의 동부 고평원지대로 튀니지와 리비아에 면해 있다. 이슬람이 들어올 당시 가장 열렬히 이슬람을 수용한 베르베르어권 지역이다(Pierre Bourdieu 1956:2장 참조)

9)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름으로, 중세시대 산하자(Sanhadja), 마스무다(Masmuda)족과 더불어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Gabriel Camp 2007:132).

10) 중세시대 베르베르 부족의 연합체를 일컫는다. 산하자(Sanhadja), 마스무다(Masmuda) 부족과 더불어 가장 세력이 컸던 베르베르 부족 연합체였다. 아랍이 처음 들어올 때 제나타 부족이 아랍과 적극적인 동맹을 맺었기에 산하자를 비롯한 다른 베르베르 부족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다(주석8 참조).

11) https://en.wikipedia.org/wiki/Yazid_ibn_Abi_Muslim

의 설교는 베르베르인의 마음을 끌 수밖에 없었다.

카와리지 종파¹²⁾는 알리와 무아위야가 시핀전투(657년)에서 알리 편에 섰다가 떨어져 나간 분파이다. 그들은 지도자의 선제 조건에 혈통은 큰 의미가 없고 믿음과 능력이 우선이라고 설교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에 누구나 능력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그들의 사상은 무함마드와 알리 혈통을 중요시하는 쉬아파나 전통과 합의를 중시하는 수니파 이슬람과는 완전히 다른 노선이었다. 그런 카와리지파의 주장은 차별에 시달리던 베르베르인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고, 상당 기간 베르베르인은 이런 이슬람의 이데올로기를 추종했다.

2. 베르베르인의 대항거 시대와 시칠리아 정복 실패

카와리지파 사상과 베르베르인의 불만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대규모 항거로 이어졌다. 이른바 베르베르인의 대항거 시대(740-743년)를 맞은 것이다. 우마이야 왕조가 이들을 끌어안지 못하면서 발생한 폭거는 베르베르인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과도 같았다. 이븐 할둔(Ibn Khaldun 2014:237)에 따르면, 탕헤르에 있던 마이사라(Maysara, ?-740)를 지도자로 세운 베르베르인은 카와리지 분파인 수프리즘(Sufrism)을 신봉했다고 한다. 마이사라를 앞세운 베르베르인은 삭발하고 창끝에 꾸란 구절을 단 채 탕헤르로 진격하여 점령했고, 자신들을 차별 정책했던 우마이야 탕헤르 주지사 우마르 이븐 모라디(Omar Ibn Moradi)를 사형시켰다. 당시 이프리카야의 총독은 부족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시칠리아 정복 원정을 명한 상태였다. 표면적으로 통치 자금 부족으로 시칠리아 정복에 나선 것이며¹³⁾, 740년 수프리즘 왕조가 마그레브에 들어설 시점에 발생

12) 카와리지파는 수니와 쉬아파 다음의 이슬람 3대 종파를 이룬다. 66년 3대 칼리파 암살 이후, 우마이야 왕조가 출현하기 전까지 상황에서 출현한 종파이다. 오늘날에는 거의 잔존하지 않지만, 그 당시의 분파였던 이바디즘이 북아프리카 곳곳에 남아 있다. 북아프리카의 이들 분파에 대한 설명은 임기대(2014, 2019, 2020a, 2020b, 2020c, 2020d)를 참고할 수 있다.

했다¹⁴⁾. 당시 아랍군은 이프리카야 주력 부대를 이끌고 시칠리아의 시라쿠사(Syracuse)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을 즈음 ‘마그레브’에서 베르베르인의 반란이 일어나 귀환 명령을 받자, 시라쿠사로부터 조공 받는 조건으로 이프리카야 아랍군은 강화 조약을 맺고 귀환했다. 전열을 가다듬은 베르베르인과 아랍군 간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를 ‘바그도우라’(Bagdoura, 741)¹⁵⁾ 전투라 부른다. 이 전투에서 이프리카야 아랍군은 베르베르인에게 완패했고, 이때부터 베르베르인은 마그레브와 이프리카에서 자신들의 왕조 건설을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우마이야 왕조의 마그레브 통치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해갔다. 압바스 왕조가 들어섰지만, 베르베르 왕조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 왕조를 구축했으며 당연히 시칠리아 정복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시칠리아에 관심을 가진 인물은 아브드 알라흐만 이븐 하비브(Abd al-Rahman ibn Habib, ?-755)이다. 그는 자신의 고조할아버지인 오크바 이븐 나피의 피를 이어받아 이프리카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740년 시칠리아를 처음 공격한 아랍군 하비브(Habib)의 아들이었다. 부친을 따라 시라쿠사에도 갔고, 바그도우라 전투에도 참여했다. 부친은 바그도우라 전투에서 사망했고, 전쟁에도 패하며 아브드 알라흐만 역시 이프리카야로 돌아가 세력을 잡았지만 이후 7년 동안 페스트와 기근이 돌고 전쟁까지 지속되면서 영향력을 상실했다(김승철 2016:156).

그는 지역의 안정을 토대로 다시 시칠리아 정복을 계획하려 했다. 하지만 페스트와 기근과 같이 좋지 않은 상황 이외에도 당시 베르베르인

13) 이슬람이 시칠리아를 공격한 것은 이보다 거의 100년 정도 앞선 652년 처음 시칠리아 시라쿠사를 공격했다(시오노 나나미 2018:31-42). 하지만 당시의 시칠리아 공격은 거의 해적 수준의 산발적인 공격에 머물렀다.

14) 오늘날 모로코와 알제리 국경 지대의 틀렘센(Tlemcen)을 중심으로 한 수프리즘 왕조(742-790) 건립 과정과 베르베르인 관련 내용은 임기대(2019)를 참조할 수 있다.

15) 오늘날 모로코 페스(Fez) 근처에서 아랍과 베르베르 간에 벌어진 전투이다. 아랍의 차별에 대한 베르베르의 반항으로 이후 카와리지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의 붕괴, 베르베르인 간의 세력 대결 등 녹록치 않은 상황이 일상적이었다. 게다가 카와리지에서도 청교도적 색채가 짙은 이바디즘이 알제리 티아렛(Tiaret)을 중심으로 확장해갔고, 이프리카야에서도 제르바(Djerba) 섬과 트리폴리에서 번성하고 있었다(임기대 2020a, 2020b). 아브드 알라흐만이 이들 세력을 가까스로 진압했지만, 이후에도 이바디파 무슬림은 네푸사로 도망하여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아브드 알라흐만의 지역 패권 장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네푸사(Nefusa) 베르베르인은 베르베르인의 대항거 시대에 우마이야 왕조에 맞서 싸울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프리즘을 수용하였고, 카이루안을 잠시 비운 아브드 알라흐만을 공격하여 고립시켰다. 군대조차 고립된 아브드 알라흐만을 구해주지 못했고, 네푸사 베르베르인은 카이루안에 무혈입성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카이루안에서 약탈과 학살을 자행하며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민초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김승철 2016:159). 결국 아주 짧은 기간(756-758) 동안 튀니지를 통치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트리폴리 이바디파 베르베르인에 압도당하며 지역의 통치권을 내주었다. 이바디즘은 수프리즘과 같은 카와리지 분파지만 비폭력 노선을 견지한다. 이런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어 지역 내에서 평화와 더불어 공동체 기구 활성화, 타문화와의 공존을 공유하고 있다(임기대 2014, 2019). 특히 제르바섬의 이바디파는 기독교는 물론 유대교와도 오랜 기간을 공존했을 정도로 타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다(임기대 2020b). 이프리카야의 지역색이 당시 어떠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음자브(M'zab) 지역의 경우 타 종교가 차지하고 있는 정체성은 거의 없지만 타자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고, 지역의 정체성 보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임기대 2019). 이프리카야가 이슬람을 수용했어도 얼마나 이 문화에 대해 관용적인 곳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제르바 이바디즘 사원

음자브 지역 전경

음자브 이바디 문화보관소

[사진 2] 제르바 섬과 음자브 지역의 이바디즘

하지만 평화주의를 내건 이바디즘도 잠시 동안 카이루안과 트리폴리 지역의 평화를 가져왔지만 761년 압바스 왕조(Abbasid, 750-1258)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후 압바스 왕조는 우마르 이븐 하프스(Umar ibn Hafis, ?-771)를 보내 이프리카야를 통치했다. 그의 재임 기간(768-771) 총독으로 지내고 이후 그의 후손이 795년까지 이프리카야를 통치했지만, 시칠리아를 본격적으로 침략하지는 않았다.

아랍의 시칠리아 정복은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고, 특히 이프리카야의 불안정은 초기 시칠리아 정복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수프리즘과 이바디 분파의 지속적인 항거와 아랍의 대 베르베르인 차별 정책, 압바스 지도자에 대한 이프리카야 말리키파의 불만 등 복합적 요인들이 시칠리아 정복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다. 압바스 왕조의 총독인 우마르 이븐 하프스가 잠시 지역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잠시에 불과했고 시칠리아 정복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아글라비드 왕조(Aghlabid, 800-909)가 들어선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이전과 다른 점은 해적 수준의 산발적인 시칠리아 공격이 아닌 왕조 차원의 공격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III. 아글라비드 왕조와 시칠리아 문제

1. 아글라비드 왕조의 출현

아글라비드 왕조는 아프리카나 마그레브의 왕조와는 달리 압바스 왕조를 주군으로 받들었다. 이프리카야를 제외한 지역에서 이슬람 수니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에 비해 이프리카야의 카이루안에는 수니의 말리키파가 많았다. 또한 여러 이슬람 종파와 지역의 기독교, 유대교, 토착 신앙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슬람 이외의 종파를 믿은 사람들은 행정원으로 일하기도 했다(아이라 M.라피두스 2009:507). 이웃한 마그레브에는 쉬아파 이드리스(Idriss, 788-974) 왕조와 이바디즘의 루스탐(Rostamid, 767-909)왕조가 대립하고 있었고, 바로 직전에는 수프리즘 왕조도 있었다(임기대 2020a). 베르베르인의 향거로 이프리카야 서쪽은 압바스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이프리카야는 공교롭게도 외지인이 들어와 압바스를 추종하는 왕조를 세운 것이다.

아글라비드 왕조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도심 정비를 통해 그 위용을 자랑했다. 카이루안이 번영과 확장성을 지속할 수 있던 시기도 아글라비드 왕조의 지배 기간이었다. 성을 구축하고 주변에는 바자회, 목욕탕, 대형 공원과 정원 등을 갖추었다. 특히 도심 수로와 교량 등의 상수도 설치는 매우 훌륭하게 구축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카이루안의 대모스크는 지야다트를 통해 재건되어 기도실엔 수많은 기둥과 유리 타일의 풍부한 판넬과 조각된 나무 장식을 갖추었다¹⁶⁾(사진1 참조).

이슬람이 이프리카야와 마그레브 지역에 처음 들어와 아글라비드 왕조가 들어선 시점까지는 이렇듯 격변의 시기로 점철된다. 아글라비드 왕조가 들어선 시점까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 <https://muslimheritage.com/the-aghlabids-of-tunisia/>

〈표 1〉 아랍의 도래와 아글라비드까지의 북아프리카 이슬람 왕조

| 인물/왕조 | 기간 | 내용 | 비고 |
|---------------------------|-------------|--|---------------|
| 이븐 오크바 | 622- 683 | 무력으로 이프리카야 정복. 카이루안 설립 (670-680). 베르베르인과 충돌 | 쿠사일라의 살해 |
| 무사 빈 누사이르 | 640- 716 | 차별없는 포용 정책 실시. 베르베르 군 장교 발탁 및 이베리아 정복 | 베르베르 대폭 개종 |
| 우마이야 왕조 | 661- 750 | 우마르 이븐 모라디 등의 아랍우월주의 정책. 세금 부과 및 장교직 박탈 등 | 베르베르인 반발 |
| 수프리즘 왕조 ¹⁷⁾ | 742- 790 | 알제리와 모로코의 경계 틀렘센을 수도로 설립. 사하라 무역로 시질마사 건립. 대상들의 서아프리카 교류 | 카와리지 원리주의 |
| 와르파주마 | 756- 758 | 리비아 네푸사 베르베르인이 건립. 튀니지 일부까지 통치 | 카와리지 원리주의 |
| 루스탐 왕조 | 767- 909 | 티아렛을 수도로 건립하는 이바디즘 신봉 왕조. 페르시아 출신 이븐 루스탐이 건립 | 카와리지 평화주의 |
| 이드리스 왕조 | 788- 974 | 메카의 이드리스 1세가 쉬아파의 알리 후손 이라는 명분으로 베르베르인이 추대 설립 | 쉬아파 |
| 아글라비드 왕조 | 800- 909 | 수니 말리키파 숭상. 카와리지의 분파인 수프리즘과 루스탐과 대립 관계 | 아랍 중심의 수니파 |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글라비드 왕조를 제외하곤 당시 왕조의 주축 세력은 대개 베르베르 중심의 왕조였다. 아글라비드 왕조만이 아랍 중심의 왕조였으며, 수니의 말리키파를 숭상하였다. 하지만 이 왕조는 토착 베르베르인에게 늘 시달렸다. 아글라비드 왕조 초기 베르베르인을 차별한 데다 말리키파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아글라비드 초대 에미르(Emir) 이브라힘 이븐 아글라브(Ibrahim I ibn Aghlab, 이브라힘 1세, 756-812)는 압바스 왕조를 섬겼다. 문제는 그의 생활이 지나치게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데다 당시 지역의 주요 개종자인 베르베르인을 차별하기까지 했다는 점이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베르베

17) 마그레브 지역과 안달루시아를 연결하는 수프리즘 이슬람 왕조에 대해서는 임기대 (2019)를 참조할 수 있다.

르인은 같은 무슬림 지도자의 차별에 불만이 컸다. 당시 지역의 말리키파조차 이런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압달라 1세를 임명했다. 압달라 1세에 이어 그의 동생 지야다트(Ziyadat Allah I ibn Ibrahim ibn al-Aghlab, 788-838)¹⁸⁾가 권력을 승계하면서 명실상부한 왕조의 기틀을 다져갔다. 말리키파를 숭상하면서 아랍과 지역민의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지야다트는 여러 학문 기관¹⁹⁾을 설립하고 특히 재위 기간 종교와 법학 문제를 둘러싼 지적 논쟁이 활발했다(Marcel. Solignac 1952).

이렇듯 지야다트 지배하에서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안정기를 맞이하기는 했지만, 내부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내부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 지야다트는 시칠리아 정복에 눈을 돌렸다. 게다가 오래전부터 바다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베르베르인이 이프리카야 바닷가 한복판에 있었다. 그들에게 시칠리아는 단순히 비즈니스를 위한 곳만이 아닌 ‘지하드’(Jihad)를 위한 곳으로 참여할 수 있기에 참여를 거부할 리 없었다. 수많은 베르베르인이 ‘지하드’와 비즈니스,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점에서 시칠리아 정복은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인과 교역 지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흔히 이슬람의 시칠리아 정복은 당시 시칠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비잔틴 제국의 문제를 지적한다. 즉 비잔틴의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시칠리아가 이슬람의 침략을 받았다는 것인데, 당연한 이치였다. 하지만 시칠리아 공격에 나선 이프리카야에서는 아글라비드 내부 문제가 더 불안정했다. 경제적, 문화적 안정을 더해갔지만 당시 아랍과 아랍, 아랍과 베르베르, 베르베르와 베르베르 간의 대립까지 치열한 양상이었다²⁰⁾.

18) 원명은 Abu Muhammad Ziyadat Allah I ibn Ibrahim ibn al-Aghlab이다. 재위 기간은 817-838년 기간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Ziyadat_Allah_I_of_Ifriqiya

19) 흔히 ‘지혜의 집’(Bayt al-Hikmah)이라 하며, 아글라비드 왕조 당시 의학, 천문학, 공학 및 번역 연구에서 바그다드에 필적할만한 곳이었다고 한다.

<https://muslimheritage.com/the-aghlabids-of-tunisia/>

20) 기존의 수프리즘과 이바디즘, 이후 베르베르 왕조인 산하자 부족의 지리드(Zirid)

2. 아글라비드의 시칠리아 정복

흔히 아글라비드의 시칠리아 정복을 827년부터 902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본다(김승철 2016:237). 오늘날 튀니지와 시칠리아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다면, 75년이라는 정복 기간 자체가 순탄치 않았음을 말해준다. 게다가 아글라비드가 정복했다고는 하지만 그 정복 자체는 불안정했다. 비잔틴 또한 힘은 약화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산발적인 저항을 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시칠리아 정복을 늘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했다.

아글라비드가 시칠리아를 탐한 이유는 무엇보다 지리적 근접성과 비옥한 자연환경이다. 이런 입지 조건으로 이전부터 여러 해적이 빈번한 활동을 해왔다.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의 중간 지대에 있는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지중해를 동서로 가르는 지점이기도 했다. 게다가 토지까지 비옥하니 이슬람이 뺏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점은 비잔틴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시칠리아 점령 자체가 지루하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어 역사적 사료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 특히 시칠리아 침공 당시의 이프리카야 베르베르 관련 자료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 아니던가.

전술한 바와 같이 이슬람이 시칠리아에 상대적으로 늦게 진출한 것은 안달루시아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적이 산발적으로 있었지만, 이슬람은 마그레브와 이베리아반도의 이슬람화가 더 질신했다. 게다가 8세기까지 마그레브에서는 베르베르인의 저항이 심하게 일고 있었기에(심지어 힘에서도 밀리고 있었다) 시칠리아로의 확장이 쉽지 않았다. 베르베르인은 카와리지와 쉬아의 이념에 경도되어 있었고, 자신

왕조가 이프리카야 서쪽에서 기회를 엿보고, 이후 쿠타마 부족까지 쉬아의 파티마 왕조에게 협력하려고 아글라비드 하에서 저항하는 세력을 은밀히 알제리 세티프(Sétif)에 숨겨주기도 했다. 지리드 왕조의 산하자 부족과 쿠타마 부족 관련 내용은 임기대(2020c, 2020d)를 참조할 수 있다.

들만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유지하려고 힘을 쏟았다. 베르베르인 간의 반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 이미 752년 아브드 알라흐만 이븐 하비브(Abd al-Rahman ibn Habib, ?-755)가 시칠리아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사르데냐섬을 공격했지만, 베르베르인의 본토 반란으로 무산되지 않았던가(표 1 참조). 그 정도로 마그레브나 이프리카야 상황은 베르베르인의 수시 저항에 맞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800년 아글라비드 왕조가 탄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압바스 왕조에 충성을 맹세한 아글라비드 왕조는 이프리카야의 새로운 패자로 등극했고, 시시때때로 시칠리아 침공을 계획했다. 내부 혼란까지 있었는데, 시칠리아 함대 지휘관 에우페미우스가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나 이프리카야로 왔다. 그는 아글라비드 왕조에 충성을 맹세하고 매년 연공을 바치겠다고 했다. 대신 시칠리아섬을 탈환할 수 있는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아글라비드의 지야다트는 가뜩이나 내부를 비롯하여 주변 지역에서 베르베르 부족 간의 반목과 분쟁, 아랍과 아랍 혹은 아랍과 베르베르 간의 대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터였다. 일부 마그레브 역시 그렇지만, 이프리카야의 대립과 분쟁은 종파적 이념 대립의 양상이 컸다. 특히 베르베르인은 우마이야 왕조의 압정에 불만을 가진 데다 아글라비드의 수니 말리키에도 불만을 품고 있었다. 아글라비드의 수니 말리키파 학자들도 지야다트를 비롯하여 지배층의 지나친 사치 생활을 비판하고 차별화된 세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내부 갈등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었다. 지야다트는 이런 내부 분열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랍 정복자들과 연합하여 비잔틴제국에 맞서 내부 분열을 타파해보고자 했다. 당연히 베르베르인의 동참을 요구했고 이익 배분을 약속했다. 이익 분배는 베르베르인과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매력이었다²¹⁾.

21) 베르베르인은 이미 시칠리아를 상대로 해적 행위를 해온 상태였는데, 이슬람의 ‘지하드’에 참여하며 금전 보상까지 이뤄진다니 대환영을 했다. 시오노 나나미(2008:74)도 언급했듯이 당시 이프리카야 병사와 배가 베르베르인의 해적과 해적선을 뜻할 정도로 그 수는 압도적이었다. 이들이 모두 시칠리아 정복에 참여할 수 있다니 이해 당사자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시칠리아 내에서 내부 세력의 반란이 있었다²²⁾. 시칠리아의 함대 사령관 에우페미우스가 본국을 배반하고 아글라비드로 도망 와 병력 제공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내부 불안 상황을 타개할 호기였다. 마침내 시칠리아 정복이라는 위대한 프로젝트가 827년 실행되었지만, 처음부터 원활하게 진행할 수는 없었다. 817년 비잔틴과 맺은 평화협정이 시칠리아 원정을 주저하게 했다. 협정을 무효화하는 일이 원칙에 어긋나긴 했지만 결국 협정을 무효화하면서 아글라비드는 단독으로 시칠리아 침공을 감행했다. 에우페미우스가 조공을 바치기로 하면서 막대한 시칠리아의 재화와 조공이 아글라비드의 국고를 충분히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한껏 기대를 모았다. 아랍에 반발하던 베르베르인의 기대감도 상상 이상이었고, 적극 협조에 응했다. 시칠리아 침공을 단행하는 여정은 에우페미우스와의 연대가 중요했다. 하지만 에우페미우스 군 또한 이슬람에 무조건적인 앞잡이로 만족하려 하지 않았다. 에우페미우스라는 독특한 인물의 내부 이적 행위 및 반란, 아글라비드에 조공 바침, 아글라비드 배신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칠리아 정복은 지속되는 전쟁을 피해갈 수 없었다.

3. 에우페미우스와 시칠리아 공전

지야다트는 아랍과 수만 명의 베르베르인으로 구성된 보병과 기병, 배 그리고 에우페미우스가 제공한 수십 척의 배와 병사를 이끌고 수스(Souss)²³⁾항을 출발하여 시칠리아 남서부 마자라(Mazara)에 도착했다.

22) 에우페미우스가 시칠리아 출신의 함대사령관이지만 시칠리아 실권자는 비잔틴 제국에서 파견한 사람이었다. 문제는 이 통치자가 에우페미우스 부인을 빼앗아 아내로 취하면서 에우페미우스는 물론 시칠리아 남성들의 분노까지 자아냈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시칠리아에서는 비잔틴에 대한 배척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시오노 나나미 2008:71-72). 이런 상황 또한 아글라비드가 침략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23) 오늘날 동남부 튀니지의 주요 항구이지만 아글라비드 왕조 시절에는 수도에 버

마자라는 시칠리아와 이프리카야가 마주 보는 최단 거리의 해안 도시이다. 에우페미우스를 내몬 시칠리아 군병이 맞섰지만 아사르의 무슬림 군병을 이길 수 없었다. 마자라의 승리를 지휘한 아사르는 또 다른 목표지 시라쿠사로 향했다. 본명이 아사드 이븐 알-푸라트(Asad ibn al-Furat, 759-828)인 아사르는 당시 아글라비드를 통치하고 있던 지야다트의 사치 생활을 비판하는 데 앞장선 말리키 법학자이자 신학자였다. 하지만 그는 전쟁 전문가가 아니었다²⁴⁾. 자신을 비판하는 아사드를 없애기 위해 지야다트는 시칠리아 침공 책임자로 아사드를 임명했다. 내부의 적을 이슬람의 적을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시칠리아로 내보낸 셈이다. 아사르는 시라쿠사를 공격하여 쉽게 승리하였다. 시라쿠사는 비잔틴 제국의 지원을 받을 형편이 아니었기에 승리는 생각보다 수월했다. 그러나 아사르는 최종적으로 시라쿠사를 점령하지 못했다.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시라쿠사를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전쟁 전문가가 아닌 법학자이다 보니 시칠리아 현지에서 다양한 정체성으로 엮인 아글라비드 군대를 통솔하기가 쉽지 않았다. 마침 지역에 돌기 시작한 전염병이 무슬림 군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아사르도 급작스럽게 걸린 전염병으로 사망하면서 지야다트의 전략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만다.

이런 와중에 에우페미우스는 아글라비드에게 충성 서약을 어기면서 시라쿠사측과 비밀리에 접촉하였다. 이미 에우페미우스가 시라쿠사측과 접촉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사르가 시라쿠사 진영을 친 것이었다. 하지만 아사르의 공격이 전염병으로 무산되고 에우페미우스 또한 시라쿠사와의 협상 과정 중 시칠리아 특사단에 살해되

금가는 군사 도시이자 항구였다. 카이루안과 더불어 아글라비드 왕조에서 무역 거점도시이기도 하여 지중해 도시와의 교역이 활발한 곳이다. 지중해 관련 역사 박물관 등의 유적과 자료, 도시 조성 등은 수도 튀니지에 비해서도 훨씬 나아 보인다. 아글라비드는 여러 리바트(Ribat)를 지은 것으로도 유명한데 수스의 리바트를 가장 완벽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리바트는 모서리가 원형 타워로 되어 있는 게 주 특징이다.

24) https://en.wikipedia.org/wiki/Asad_ibn_al-Furat

고 만다. 에우페미우스가 일으킨 반란으로 시작된 시칠리아 문제, 이후 아글라비드의 내부 문제와 에우페미우스의 조공과 충성 서약, 아글라비드와 비잔틴의 싸움 등이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노예로 팔려 갔고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 이렇듯 시칠리아 침략은 긴 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지루한 공전을 거듭했다.

〈표 2〉 시칠리아 공전 일지²⁵⁾

| 연도 | 내용 | 특이 사항 |
|-----|--|-------------------------|
| 817 | 자이아트 아글라비드 왕조 통치 시작. 내·외부 불안 요소 상승하며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시칠리아 공격 계획 | |
| 827 | 시칠리아 함대 지휘관 에우페미우스 조공 맹세. 시칠리아 마자라(Mazara) 침공. 내부의 적인 아사드를 총 책임자로 파견 | 말리키파와 다양한 형태의 베르베르인이 주축 |
| 828 | 시칠리아 파견 무슬림 병사 전염병 확산. 아사드 사망. 아글라브군 미네오로 퇴각. 에우페미우스도 살해 당함 | |
| 829 | 미카일 2세의 개입과 이슬람군 궤멸. 아글라비드 군병 이프리카야로 철수 | |
| 830 | 코르도바와 아글라비드 연합군 시칠리아 미네오 침략. 전염병이 다시 전파되며 무슬림 군 타격 | 비잔틴군의 승리와 테오도투스 사망 |
| 831 | 팔레르모 함락과 총독(자이아트 사촌) 파견. 시칠리아 에미르국 칼비드 왕조의 탄생 | 칼비드왕조 1091년까지 지속 |
| 843 | 메시나(Messina) 함락 | |
| 869 | 이탈리아 남부 공격. 몰타 점령 | |
| 878 | 비잔틴 주요 요새 엔나(Enna) 함락. 시라쿠사 무슬림의 통치 시작 | |
| 909 | 시칠리아는 아글라비드에서 파티마 왕조의 통치 하에 들어감. 강력한 정책 실시 | 쉬아파와 베르베르 쿠타마족 등장 |

25) 시칠리아 공전은 김승철(2016), 시오노 나나미(2008)의 책과 시칠리아 토후국에 대한 인터넷 자료(https://en.wikipedia.org/wiki/Emirate_of_Sicily)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829년 들어서자 비잔틴의 미카일 2세(770-829)가 시칠리아 무슬림을 위기에 몰아세웠다. 830년 안달루시아의 코르도바 에미르가 이슬람군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지원했다. 코르도바 에미르는 아글라비드와는 결이 다른 이슬람 왕국이었다. 아글라비드가 압바스 왕조를 섬겼던 반면, 코르도바 에미르는 압바스와는 다른 노선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결이 다른 코르도바 에미르가 아글라비드 왕조를 도운 격인데, 시칠리아 정복을 위해 함대까지 파견해주었다. 코르도바 에미르가 아글라비드 왕조를 도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글라비드는 도움받는 대신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둘째, 당시 서지중해의 해상권이 아글라비드에게 넘어간다면 하는 불안감이 코르도바 에미르에게 있었다. 같은 무슬림이라고 해서 무조건적 연합이 아닌 기독교의 확장을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정략적 연합이었던 셈이다. 코르도바 에미르와 아글라비드 연합군이 시칠리아 미네오를 점령해오자 비잔틴 세력은 엔나(Enna)로 피신하였다. 엔나를 공격했지만, 연합군 세력이 막강하여 쉽게 무너트리지 못하던 차에 또다시 전염병이 무슬림 캠프 내에 만연했다. 비잔틴군 입장에서는 이런 호기가 없었지만 비잔틴 지휘관 또한 사망하면서 요충지 엔나가 무슬림의 수중에 넘어갔다. 878년의 일이었다.

이후 시칠리아 동쪽은 비잔틴이 차지하고 서쪽은 무슬림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은 902년까지 쉴 새 없이 지속되었고,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다. 비잔틴의 요새인 엔나를 함락시킨 이후 시라쿠사까지 무슬림 수중에 넘어갔다. 이 와중에 867년 비잔틴에서는 마케도니아 왕조가 들었고, 이프리카야에서는 파티마 왕조가 아글라비드를 물리치고 지역의 새로운 패자로 등장했다. 909년 시칠리아도 당연히 파티마 왕조의 손아귀에 들어갔다(아이라 라피두스 2009:16장). 시칠리아가 이슬람의 수중에 들어갔지만, 새 왕조의 주도 세력 또한 또 다른 베르베르인이었다.

IV. 베르베르인의 역할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시칠리아와 베르베르의 관계를 조명한 글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그만큼 이 둘 간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보다 이슬람과 기독교 혹은 아랍과 서양이라는 대단위로 지역 관계를 살펴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아글라비드 치하의 이프리카야 상황을 보게 된다면 시칠리아 정복과정은 복잡 다양한 역학관계가 있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시칠리아 침공은 아글라비드 내부의 문제, 마그레브와 이프리카야의 아랍과 베르베르, 베르베르와 베르베르, 시칠리아 내 문제,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복합적인 문제에서 발생했고, 여기에서 베르베르인은 그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랍과 베르베르인의 대결은 이데올로기와 세금 등의 차별 정책과 베르베르인 특유의 ‘저항성’²⁶⁾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이프리카야는 쉬아와 카와리지의 수프리즘과 이바디즘이 득세했고, 일부 소수 유대인²⁷⁾과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가 공존하였다. 게다가 지역별 베르베르인의 공존은 이슬람 수니가 쉽게 침투할 수 없는 구조였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다문화 사회의 전형이 복잡하게 얽혀 있던 것이다²⁸⁾. 여러 정파 간, 부족 간 대립도 그렇지만 통치자의 입장에서 아랍과 베르베르 간의 대결은 가장 어렵고 곤혹스러운 문제였다. 통치자의 입장에

26) 베르베르인은 스스로를 가르켜 ‘이마지젠’(Imazighen)이라 부른다. 이는 ‘자유인’을 의미하는 말로 베르베르인은 누군가의 구속을 받는 걸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타자화된 대상으로서의 ‘베르베르’라는 용어는 베르베르권 지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이마지젠’이나 단수형인 ‘아마지그’(Amazigh), 지역 단위의 부족명(카빌, 리펑, 모자비트 등)을 사용한다.

27) 아글라비드 왕조 치하의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이집트의 유대인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마그레브 최대의 유대인 공동체를 건설하였다.

<https://www.encyclopedia.com/religion/encyclopedias-almanacs-transcripts-and-maps/aghlabids>

28)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같은 시기 다문화적 정체성을 보인 로마와 마찬가지로 이프리카야 또한 다문화적 정체성을 보인 곳이라 볼 수 있다.

https://www.qantara-med.org/public/show_document.php?do_id=866&lang=en

서 이 난국을 외부로 돌리려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고, 그 중심에 시칠리아가 있었다.

시칠리아 내에서는 에우페미우스의 배반과 같은 비잔틴의 문제가 기회 제공을 해주었다. 내부에서의 배반이 발생하고 비잔틴의 군사력이 약화되자 비잔틴 본국의 시칠리아 장악력이 떨어졌다. 게다가 시칠리아에서 반란까지 발생했다. 특히 미하일 2세 치하에서 슬라브족 출신 토마스 반란은 외부 공격을 받는 비잔틴 제국이 손조차 쓸 수 없게 하였다²⁹⁾. 이틈을 놓치지 않고 아글라비드가 시칠리아를 공격한 것인데, 결정적인 역할은 당시 아글라비드 내부의 복잡한 상황, 에우페미우스의 비잔틴 배반과 지원군 요청이었다(Kennedy Hugh 2017:2). 게다가 이전부터 있던 베르베르 해적은 언제나 새로운 시장을 공격한다면 가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들은 이미 종교와는 상관없이 오랜 기간 아프리카와의 교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다³⁰⁾.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면서 시칠리아 침공을 주도한 지야다트는 새로운 땅 시칠리아가 막대한 국고를 채워줄 것이라 기대했다. 당시 이프리카에서 대립과 반목을 한 베르베르인, 시칠리아 앞바다에서 해적질을 일삼은 베르베르인 역시 조공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다. 게다가 아프리카와의 연결은 새로운 황금 교역의 장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Antonio Brusa 2013:181). 이들은 서아프리카의 산하자족과 이프리카의 쿠타마족이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시칠리아 땅을 탐닉할 수 있었다. 신흥 세력으로도 그렇지만 아프리카와의 무역 교류를 틀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³¹⁾.

29) 미하일 2세(770-829)는 황제 자리에 올라 온건 카리스마로 비잔틴 제국을 통치했다. 하지만 잦은 반란으로 그의 재위 기간(820-829) 동안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게다가 슬라브족 출신 군인 토마스가 반란을 일으키며 제국의 힘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Michael_II

30) 베르베르인은 당시 지중해를 무대로 한 해적, 시칠리아 공격에 참여한 산하자족과 쿠타마족 등 아프리카와 지중해 해상을 연결하는 주체들이 많았다. 이들은 시칠리아 정복을 기점으로 아프리카의 니제르 가나왕국, 말리왕국과 본격적인 교류의 기틀을 마련해주었다(Antonio Brusa 2013:182).

아글라비드 왕조 하의 시칠리아 정복은 주로 베르베르인 중에서도 제나타(Zenata) 베르베르인이 다수를 이루었고, 수프리즘과 이바디즘을 신봉하는 베르베르인이 있었다. ‘지하드’에 참여한 베르베르인 병사가 4만 명에 다다랐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김승철 2016:241). 이프리카야에 쉬아파 파티마 왕조가 들어서면서는 쿠타마족(Kutama)³²⁾이라는 또 다른 베르베르 소수 종족이 전면에 등장했다. 그들은 파티마 왕조 건립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고, 이후 시칠리아 정복의 최전선에서 이슬람 통치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 이슬람 쉬아로 개종한 쿠타마족은 서아프리카의 산하자 부족 계열의 베르베르인이다. 북아프리카에는 중세 시대 산하자, 제나타, 마스무다라는 베르베르 부족이 지역별로 통치를 하고 있었다(주석9 참조). 이프리카야의 경우 제나타 베르베르 부족이 압도적이었고, 쿠타마족은 산하자 계열이었기에 피지배 계층에 있었다. 게다가 쿠타마족은 아글라비드에 비협조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베르베르 부족 이면서도 소수자였던 쿠타마족은 억압과 차별을 받았다. 때마침 들어온 파티마 왕조는 쿠타마족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쿠타마족은 오늘날 튀니지와 알제리의 경계지대, 더 정확히 말하면 알제리의 동부 지역에 거주하며 소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다(Mouna Hachim 2011). 주요 활동 지역으로는 오늘날의 카빌리(Kabylie)의 중심 지역 베자이아(Bejaïa)를 비롯하여 튀니지 방향의 지젤(Jijel)과 아랍-이슬람 문화도시 콩스탕틴(Constantine), 튀니지 국경지대 도시 안나바(Annaba), 알제리 제3의 도시 세티프(Sétif) 등이다(Housni Kitouni 2013: 48). 이프리카야에서는 제나타 계열의 베르베르, 아랍인, 말리키파, 이바디즘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었지만 쿠타마족이 살던 지역은 산하자 베르베르인이 있던 지역으로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31) 박상진(2005:31)의 제안처럼 지중해 문명 교류의 중심에 아프리카를 연관 짓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 역시 베르베르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2) 쿠타마족은 ‘Kutama’, ‘Ketama’, ‘Kotama’ 등으로도 불리는 중세 시대 베르베르 부족명이다. 베르베르어로는 이쿠타멘(Ikutamen, 단수로는 Akutam)이라 부르기도 한다(임기대 2020d).

파티마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들이 이프리카야의 새 주인이 되었고, 시칠리아 침공 또한 이들의 손아귀에서 좌우되었다.



[그림 1] 산하자와 쿠타마족의 분포와 이동 경로³³⁾

쿠타마족은 가뜰이나 차별받는 데다 이프리카야가 압바스의 아글라비드 왕조 치하에 있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 아글라비드 왕조 치하에서 소외받던 쿠타마족은 쉬아파 파티마 왕조가 이프리카야를 점령하는 데 선봉에 서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글라비드 왕조에 반기를 든 아랍 군병을 세티프 근처에 두 번이나 수용해주기도 했다(임기대 2020d). 그들은 주변 지역에서 점차 중심 지역인 카이루안을 넘보았다(Kennedy Hugh 2017:37). 마치 당시 지역의 카와리지 분파들인 이바디즘과 수프리즘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중앙 지역을 공격하려 들었다. 다른 점은 쉬아파로 개종하여 파티마 왕조와 연합 전선을 펼쳤다는 점이다. 신생 왕조인 파티마 왕조로서는 지역의 정세를 잘 알면서 자신들과 적대 관계의 압바스 왕조에 대결할 수 있었고, 군 조직까지 관리해줄 수 있는 현지 베르베르인이 있어 든든했다. 게다가 그들은 아랍의 차별 정책으

33) [그림 1]은 임기대(2020d)에서 제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로 베르베르인 중에서도 ‘소수자’이자 ‘주변인’에 머물고 있던 처지였다. 파티마의 쉬아파는 쿠타마족의 이런 심리적 갈등을 잘 읽고 활용했다. 쿠타마족은 909년 3월 19일 아글라비드 왕조를 가장 선봉에서 무너트렸고 결국 파티마 왕조 수도를 마디야(Mahdiyah)³⁴)에 건립했다.

쿠타마족은 수니파 이람에 적대적이었다. 브라힘 제루키(Brahim Zérouki 1987:65-79)는 베르베르인 중심의 이바디파 이슬람이 카이루안을 탈취한 시점에 쿠타마족이 동참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쿠타마족이 처음에는 카와리지를 신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페르시아 출신 이븐 루스탐(Ibn Rustam)이 이바디즘의 루스탐 왕조(Rustamid dynasty, 767-909)를 건립하자 베르베르 일부가 적대적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루스탐 왕조는 카와리지의 이바디즘을 신봉하기는 했지만, 베르베르인이 주도하여 건립한 왕조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틈을 타서 소카벨리에서 쉬아의 이스마엘파가 전도를 시작했고 베르베르 집단을 분열시켰다(임기대 2020d). 분열된 틈을 타 파티마 왕조는 쿠타마족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일 수 있었다. 쿠타마족은 세티프에 파티마 왕조에 충성할 수 있는 군양성 요새를 건설했으며, 이들이 아글라비드 왕조를 무너트리고 카이루안을 탈취하는 데 막후 역할을 했다. 이후 쿠타마족은 파티마 왕조에서 군과 정부의 요직을 두루 차지하며 철저히 아랍화해갔다(임기대 2020d). 쉬아의 쿠타마족은 자신들과 같은 이바디즘을 숭상한 베르베르(제나타)인을 적대시하였고, 이에 이바디파를 숭상한 베르베르인은 결국 카이루안을 떠나고 만다³⁵). 쿠타마족은 이후 시칠리아까지 정복하는 데 있어 혁혁한 공헌을 했다. 기존 아글라비드 치하에서 권세를 얻었던 시칠리아 베르베르인 또한 쉬아로 개종한 쿠타마족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이프리카야에서 대립과 충돌을 한 이들 관계가 시칠리아에서

34) 오늘날 수도 튀니스와 제르바섬 가운데 위치한 해안가 도시이다. 현재는 관광업으로 유명하며 인구는 약 7만 명 선이다.

35) 오늘날 튀니지 제르바섬의 이바디파가 이에 해당된다. 제르바섬의 이바디파는 로스탐 왕조와는 같은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제르바섬의 이바디즘은 임기대(2020b)를 참조.

도 반복된 것이다. 문제는 시칠리아 정복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파티마 왕조가 또다시 이집트 정복에 나선 것이다. 이집트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시칠리아에 대한 지배권이 약화되자 또다시 아랍과 베르베르, 베르베르와 베르베르 간의 분열이 시작됐고, 이 틈을 타 비잔틴이 시칠리아를 공격하였다. 시칠리아에 있는 무슬림이 이프리카야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산하자 베르베르의 지리드(Zirid, 972-1148³⁶) 왕조에 손을 내민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지리드 왕조는 쿠타마족과 같은 산하자 부족이었기에 파티마 왕조는 지리드 왕조에 이프리카야와 시칠리아 지배권을 맡겨두고 이집트로 떠났다. 지리드 왕조는 쿠타마족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시칠리아를 떠나자 파티마 왕조 이름으로 대리 통치하게 된다(임기대 2020c). 적어도 파티마 하의 시칠리아는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다(Antonio Brusa 2013:187).

〈표 3〉 파티마 왕조의 시칠리아 지배³⁷⁾

| 연도 | 내용 | 비고 |
|-----|---|----|
| 909 | 파티마 왕조의 시칠리아 정복 및 지배 | |
| 913 | 시칠리아 내 비잔틴의 반란. 쉬아 주도에 불만을 드러낸 수니 계열의 아랍인도 반란 | |
| 918 | 파티마 왕조의 시칠리아 완전 장악. 아랍과 베르베르 구분 통치 | |
| 937 | 베르베르인 지배 하의 아그리젠토에서 또 다시 반란 발 | |

36) 오늘날 알제리 수도 알제를 건립하고 알제 시의 카스바를 요새로 건립한 왕조이다. 알제를 중심으로 인근 카빌리(Kabylie)까지를 포괄하고 있어 제나타 베르베르와 같은 베르베르이면서도 대립각을 유지했다. 파티마 왕조가 이집트로 가면 시 이프리카야와 시칠리아를 물려받아 통치했다(임기대 2020c).

37) 파티마 왕조의 시칠리아 지배는 김승철(2016), 시오노 나나미(2008), 그리고 시칠리아 토후국에 대한 인터넷 자료(https://en.wikipedia.org/wiki/Emirate_of_Sicily)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 연도 | 내용 | 비고 |
|------|---|-----------------------|
| 939 | 시칠리아 무슬림이 반발을 일삼자 파티마 왕조는 이프리카에서 왕조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섬 구 성원을 교체 | 아랍과 일부 베르베르 반발 |
| 964 | 섬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알-하산 알 칼비 (al-Hasan al-Kalbi)를 섬의 총독으로 임명. 이후 100년 동안 통치. 하지만 시칠리아 무슬림간의 대립, 즉 아랍과 베르베르 간의 대결은 여전함 | |
| 972 | 파티마 시칠리아 장수 자와르 알 시킬리 ³⁸⁾ 장군 통솔 하에 이집트 정복. 이프리카의 군사력이 취약해지고 시칠리아 또한 비잔틴 공격에 취약해짐. 파티마에 반감을 가진 섬 주민이 파티마에 충성 맹세한 산하자의 지리드 왕조에 도움 요청 | 파티마 왕조는 새 수도를 카이로에 건설 |
| 1036 | 지리드 왕조 팔레르모 점령. 주민들의 반란과 이슬람의 지배력 쇠퇴. 지역이 파벌로 점철되는 시기 진입. 아랍, 수니, 쉬아, 산하자, 쿠타마, 제나타 등이 혼재 | |
| 1065 | 지역 주민들의 지지 업고 노르만의 정복 성공. 기독교 지배 하에서 무슬림과 공존 | |

<표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슬람의 시칠리아 정복 과정은 아글라비드 왕조부터 순탄치가 않았다. 아글라비드 왕조가 들어서고 시칠리아 정복이 본격 시작됐지만 점령 과정은 지지부진했고 오히려 내외부의 문제가 시칠리아 점령 과정을 좌지우지했다. 아랍과 베르베르, 종파 간 대립, 베르베르와 베르베르 간의 대립, 시칠리아 내의 배반과 비잔틴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어우러져 시칠리아 정복이 진행된 것이다. 이후 파티마 왕조가 들어섰지만, 시칠리아 정복과 지배 과정도 비슷했다. 시칠리

38) 자와르 알 시킬리(Jawhar al-Siqilli, ?-992)는 시칠리아 태생으로 부친이 노예 출신이라 하지만 전체적인 그의 내용은 신화적 이야기로 내려왔다(Francesca Astorri 2020). 하지만 그가 베르베르인 점을 상정한다면 제나타 베르베르인에 대적하였다는 점에서 산하자 베르베르인이었음을, 기독교 출신이었다면 비잔틴 사람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Jawhar_\(general\)](https://en.wikipedia.org/wiki/Jawhar_(general))

아 정복 과정에서 산하자, 제나타, 쿠타마족 등의 등장은 아랍이 이프리카야를 비롯하여 시칠리아 정복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로 인해 이프리카와 시칠리아의 무슬림 지배가 대립과 반발, 그로 인한 충돌로 점철되었다.

V. 나가면서

우마이야 왕조가 7세기 말부터 이프리카야를 점령했을 때 시칠리아 또한 이슬람과 기독교의 중간지대에 있다는 이유로 탐욕의 섬이 되었다. 반면 비잔틴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섬이 되었을 것이다. 동서 지중해를 가르는 이곳은 그야말로 양보 불가한 섬이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 보인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시칠리아 점령 당시의 이프리카야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다. 이슬람이 이프리카야를 정복한 이후 토착 베르베르인은 여러 부류로 나뉘었다. 이슬람을 새로운 문명이라고 열광한 제나타 베르베르를 비롯하여 우마이야와 압바스에 끝까지 저항 한 수프리즘과 이바디즘 신봉 베르베르인, 또다시 이들과 결을 달리하며 왕조 건설에 나선 산하자족과 쿠타마족, 그들 각각은 자신의 지역에서 각기 다른 종파를 수용하고 신봉하였다. 이 와중에 이프리카야에는 아글라비드 왕조가 들어서며 지역 정서와 동떨어진 말리키 이슬람을 신봉하였다. 베르베르인은 지배 세력인 말리키파의 사치와 차별 정책에 저항하였다. 일부 아랍인도 말리키파의 지나친 사치와 호화스런 생활을 비판했다. 이와 같은 구도 속에서 진행된 시칠리아 정복은 그 자체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시칠리아 상황 또한 이프리카야 통치자가 공격하기에 좋은 여건이었다. 시칠리아 정복은 그렇게 진행되었고, 이후 이프리카야에서 왕조가 바뀌면서 같은 방식의 변화가 되풀이되었다.

상황은 '주변부'의 쿠타마족이 들어선 이후에도 반복되었다. 단지 쉬

아를 신봉한 쿠타마족이 시칠리아 정복의 선봉에 있었다는 점에서만 다를 뿐이었다. 베르베르였지만 아랍화 한 쿠타마족이 시칠리아 정복의 선봉에 선 이후, 시칠리아 내부 또한 분열과 대립으로 점철된다. 이런 대립 상황은 시칠리아의 이슬람 지배를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시칠리아의 이슬람화는 당시 이프리카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설명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 더불어 이슬람화해가는 상황에서 베르베르인이 당시 왕조 출현과 더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들 중 누가 시칠리아로 갔는지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베르베르인이 시칠리아 정복의 선두에 있었고, 이들 베르베르인은 종교 개종과 상업적 이해관계, 아랍과 베르베르, 혹은 베르베르인 간의 패권 관계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달리하며 시칠리아 정복에 나섰다는 점이다. 특히 산하자족이 주도한 시칠리아와의 교류는 지중해와 아프리카의 새로운 문명 교두보를 형성했을 것이다. 산하자족이 서아프리카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설명은 베르베르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베르베르 연대기와 이슬람 수용, 대상으로서의 베르베르인 활동 등을 포괄할 수 있다면 시칠리아 이슬람화 과정은 지중해와 아프리카의 문명 교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명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승철(2016), 『압바스 연대스: 750~861년』, 좋은땅.
- 박상진(2005), 『지중해, 문명의 바다를 가다』. 한길사.
- 시오노 나나미(2008),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 상』. 김석희 역, 한길사.
- 아이라 M. 라피두스(2009), 『이슬람 세계사 1』. 김석희 역, 신연성역, 이산
- 임기대(2014), 「교차와 혼성」의 베르베르어권 ‘음자브’(M'zab) : 인류학적 종교적 관점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성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86. 한국프랑스학회, 249-286.
- 임기대(2019), 「안달루시아와 마그레브에서 베르베르 부족 ‘바누 이프렌’(Banu Ifren)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57.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339-367.
- 임기대(2020a), 「음자브(M'zab)지역과 이바디즘 : 마그레브 이슬람의 ‘특이성’에 관한 연구」,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8. 한국아프리카학회, 115-146.
- 임기대(2020b), 「중부 지중해지역의 이슬람 ‘소수자-되기’에 관한 연구」,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8. 한국아프리카학회, 116-144.
- 임기대(2020c), 「중부 지중해 지역의 ‘산하자’ 베르베르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112. 한국프랑스학회, 191-221.
- 임기대(2020d), 「중부 마그레브지역 베르베르 ‘쿠타마’족에 관한 연구」, 『한국아프리카학회지』 61. 한국아프리카학회, 209-234.
- 야지드 이븐 아비 https://en.wikipedia.org/wiki/Yazid_ibn_Abi_Muslim (검색일 2021.01.21.)
- 아글라비드 왕조 https://www.qantara-med.org/public/show_document.php?do_id=866&lang=en (검색일 2021.01.25.)
- 튀니지의 유산 <https://muslimheritage.com/the-aghlabids-of-tunisia/> (검색일 2021.01.29.)

- 아사드 이븐 알 푸라트 https://en.wikipedia.org/wiki/Asad_ibn_al-Furat
(검색일 2021.02.10.)
- 아글라비드 왕조 <https://www.encyclopedia.com/religion/encyclopedias-almanacs-transcripts-and-maps/aghlabids> (검색일 2021.02.20.)
- 미카엘 2세 https://en.wikipedia.org/wiki/Michael_II (검색일 2021.02.25.)
- 자와르 알 스킨리 [https://en.wikipedia.org/wiki/Jawhar_\(general\)](https://en.wikipedia.org/wiki/Jawhar_(general)) (검색일 2021.03.17.)
- 지야다트 https://en.wikipedia.org/wiki/Ziyadat_Allah_I_of_Ifriqiya (검색일 2021.03.25.)
- 시칠리아 토후국 https://en.wikipedia.org/wiki/Emirate_of_Sicily (검색일 2021.03.26.)
- Antonio Brusa(2013), “La Méditerranée médiévale: La mer au milieu des océans” in *Méditerranée: Une histoire à partager*, Montrouge: Bayard Editions. 159-202.
- Brahim Zérouki(1987). *L'Imamat de Tahart: premier Etat musulman du Maghreb*, Paris: L'Harmattan.
- Francesca Astorr(2020), “Jawahar al-Siqilli, the Italy-born commander who built Cairo, Al-Azhar mosque”, *AlarabiyaNews*, 2020.05.20.
- Gabriel Camp(2007), *Les Berbères: Mémoire et Identité*. France: Actes Sud.
- Hirochi Takayama(1992), “The Aghlabid Governors in SICILY : 827-909 [Islamic Sicily I]”, *Annals of Japan Association for Middle East Studies* 7. 427-443.
- Housni Kitouni(2013), *La kabylie orientale dans l'histoire*, Paris: L'Harmattan.
- Ibn Khaldun(2014, 1852 transl French.), *Histoire des Berbères et des dynasties musulmanes de l'Afrique Septentrionale*, Book on Demand Ltd.

- Kennedy, Hugh(2017), “The Origins of the Aghlabids.” In: Anderson, Glaire D., pp.2. Fenwick, Corisande and Rosser-Owen, Mariam, (eds.), *The aghlabids and their Neighbors*. Leiden: Brill, 33-48.
- Marcel, Solignac(1952), “Recherches sur les installations hydrauliques de kairaouan et des Steppes Tunisiennes du VII au Xième siècle”, in *Annales de l’Institut des Etudes Orientales*.
- Maya ShatwMiller(1983), “Le mythe d’origine berbère: aspects historiographiques et sociaux”, *Revue de l’Occident musulman et de la Méditerranée*, 35. 145-156.
- Mouna Hachim, “L’épopée oubliée des Ketama, fondateurs de l’empire fatimide - Par Mouna Hachim”, *L’Economiste.com* 2011.02.15.
- Pierre Bourdieu(1956), *Sociologie de l’Algérie*, Paris: Presse Universitaire de France.

기타

- Muslim Sicily: The rise and fall of Islam in Italy - *EgyptToday* 2017.06.01.

❖ ABSTRACT

A Study on the Islamization of Sicily and Role of the 'Ifriquia' Berber

LIM, Gida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Maghreb" or "Ifriquiya" mentioned in this article was often described or understood mainly in the Arab and Islamic areas because it is within the Islamic culture. This is based on the logic of 'identity', and it has led to various distortions of regional understanding. It can be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as what is commonly called Eurocentrism. This study aims to explore Berber's role, which is rarely mentioned in the Sicilian conquest process, and it results in 'identity'. This type of research seeks to overcome the logic of 'identity' and explore various possibilities for exchange of local culture and civilization.

It is well known that Sicily was the site of a confrontation between Christianity and Islam in the Mediterranean, and in the Middle Ages, this area was also a land of Islam. The Islamic conquest process was completed before and after the Agrabid dynasty, entering the Fatimid dynasty, but the process was not smooth. This is because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Arabs and Berbers, Berbers and Berbers, and other Islamic sects in "Ifriquia" slowed the conquest of Sicily. In the midst of this, there is little historical assessment of Berber, who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islamization of Sicily.

This study examines the situation of "Ifriquia" in the process of islamization in Sicily and various backgrounds of Berber's participation

in the conquest of Sicily. Thus, based on a number of related literatures, surveys, and research studies, this study can examine the fact that the conquest of Sicily and islamization were led by several Berbers rather than Arabs. Through this study, we can infer the role of Berber in the "periphery" and how they were able to connect the Mediterranean and African civilizations.

Key Words : Sicily, Berber, Ifriquia, Aghlabid, Fatimid, Kutama

■ 논문접수일 : 2021. 05. 10

■ 심사완료일 : 2021. 06. 01

■ 게재확정일 : 2021. 06. 02

